

우리말 間接疑問文의 意味와 機能

— 間接疑問 補文素를 중심으로 —

吳 賢 淑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動詞句 內包文 |
| II. 疑問文의 類型 및 間接疑問文의 概念과 範圍 | 2. 間接疑問 補文素의 意味
(1) '-느 가/-느 지'의 意味
(2) '-르 까/-르 지'의 意味 |
| III. 우리말 間接疑問文의 樣相 | 3. 間接疑問 補文素의 特性 |
| 1. 間接疑問文의 構造 | IV. 맺음말 |
| (1) 間接引用 疑問文 | |

I. 머 리 말

現代 國語의 敍法(mood)¹⁾은 일반적으로 平敍法, 疑問法, 感歎法, 命令法, 請誘法의 다섯 가지 類型²⁾으로 分類되어 왔다. 이 중 談話의 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敍法은 談話의 전개상 話者와 聽者 사이에 묻고 대답하는 形式이며, 여기서 묻는 形態의 發話들을 疑問法이라 한다. 즉 疑問法은 文의 內容에 대

1) 고영근(1983), 서법이란 전통적으로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일정한 형태변화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표시되는 문법범주이다.

2) 李乙煥(1973 : 225)

한 疑心과 이 疑問에 대한 해답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心的 態度를 나타내는 敍法이라 할 수 있다.

國語의 疑問文은 과거 다른 분야에 비해 그 研究가 다소 저조한 듯했으나 근래에 이르러 다른 어떤 문장유형보다 활발한 研究가 전개·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張奭鎭(1973, 1974, 1982)과 李益煥(1979, 1980a, 1980b) 등은 現代 言語理論에 바탕을 두어 疑問文을 分析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疑問文에 대한 研究가 다양한 방면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間接疑問文에 대한 研究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상복(1983)과 남기심(1973) 등이 있으나 間接疑問文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로는 미흡하다. 최근에 와서 노용균(1984)이 중앙어 의문문에 대한 統辭·意味의인 綜合的 記述로서 疑問詞의 영향권 이동문제를 論議하면서 間接疑問文에 대해 어느 정도나마 統辭의인 接近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間接疑問文의 概念이나 範圍도 모호하여 間接引用 疑問文만을 間接疑問文으로 보기도 하고 疑問 補文까지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에 本稿는 現代 國語에서 나타나는 아직 그 범위가 명확치 않은 間接疑問文을 對象으로 그 概念과 範圍를 명확히 하고 이 間接疑問文의 構造와 間接疑問文을 이끄는 間接疑問 補文素의 意味와 特徵 등을 統辭論的方法으로 接近해 봄으로써 國語 疑問文의 類型 중 하나인 間接疑問文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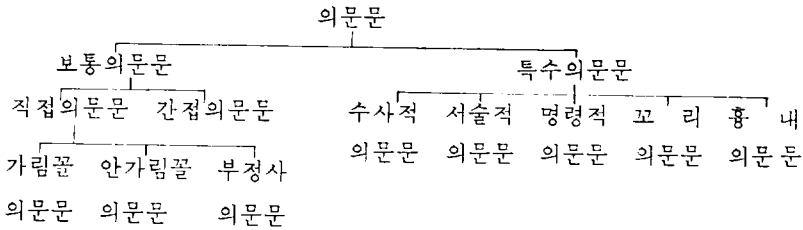
Ⅱ. 疑問文의 類型 및 間接疑問文의 概念과 範圍

間接疑問文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疑問文의 類型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國語 疑問文의 類型을 살펴봄으로써 間接疑問文의 概念과 範圍가 좀 더 명확하게 기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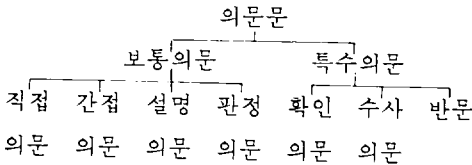
疑問文의 類型 分類는 疑問文에 관한 研究가 진행되어 오면서 꾸준히 행해

졌다. 이제까지 행해진 疑問文의 類型은 대체로 두 가지 傾向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終結語尾로 표시되는 尊卑法에 의한 分類³⁾며, 다른 하나는 形態나 쓰임에 의한 分類다. 이들 분류 중 대표적인 것으로 김영희(1975), 이현희(1982), 이성구(1983)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을 아래에 제시해 본다.

(1) I의 분류⁴⁾



(2) II의 分類⁵⁾



(3) III의 分類⁶⁾

- 3) 최현배(1983)에서의 분류가 대표적.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 반말체의 준비법 체계에 의해 의문법 어미를 분류한다.
- 4) 김영희(1975 : 70)
- 5) 이현희(1982 : 3-11)
- 6) 이성구(1983 : 48-51)

- i) 화자가 지닌 미지 정도의 양에 따른 분류
: 설명의문, 선정의문, 판정의문, 추측의문, 확인의문
- ii) 화법에 의한 분류; 직접의문, 간접의문
- iii) 청자의 상정 有無에 따른 분류; 질문, 자문
- iv) 분류가 불필요한 의문의 종류; 반문, 부가의문, 수사의문

이들의 分類를 종합해 보면⁷⁾, 보통의문문은 話法의 分類에 따라 直接疑問文과 間接疑問文으로 나뉘며, 直接疑問文은 다시 疑問詞의 有無에 따라 判定疑問과 說明疑問, 選擇疑問으로 나뉘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문제삼고 있는 間接疑問文은 모든 疑問文의 類型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를 分類하고 있는 기준이 話法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즉 話者와 聽者의 關係적 態度에 의한 分類로서 이에 의해 直接疑問文과 間接疑問文⁸⁾으로 나뉜다. 直接疑問文은 話者와 聽者와의 直接關係에서 나타나는 直接話法의 疑問으로서, 話者는 항상 聽者에게 대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달리 質問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직접 대면을 해서 發話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공손법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間接疑問文은 話者와 聽者간의 間接關係에서, 혹은 聽者가 존재하더라도 그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間接話法의 疑問이기 때문에 공손법상 中立的이다. 이를 달리 표현해서 疑心(suspicion)이라고도 한다.

- (1) ㄱ.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
 ㄴ. 어머니가 나에게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지/는가 묻는다.
- (2) ㄱ. 영이는 무엇을 좋아하니?
 ㄴ. 나는 순이에게 영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가 묻는다.

7) 특수문의문은 본고의 연구대상인 간접의문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8) 이정민(1987: 448)에서는 간접의문문을 '간접화법(indirect speech) 속에 인용된 의문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되는 간접의문문은 간접 인용의문문과 동일한 형태를 말한다.

- (3) ㄱ. 너는 고양이를 기르니, 강아지를 기르니?
 ㄴ. 나는 너에게 네가 고양이를 기르는지/는가 강아지를 기르는지/는가 묻는다.

위에서 (1. ㄱ), (2. ㄱ), (3. ㄱ)은 直接話法의 直接疑問文이며 (1. ㄴ), (2. ㄴ), (3. ㄴ)은 間接話法의 間接疑問文이다. 이들은 서로 統辭·意味면에서 일정한 대응을 이루지만 그 意味內容이 전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 ㄴ), (2. ㄴ), (3. ㄴ)은 間接疑問이 제기될 때 이해될 수 있는 상황까지 포함한 話用論的인 外形上의 表現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理論에서는 直接疑問文을 間接疑問文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Katz & Postal (1964), Ross (1970), 李益煥(1980b) 등이다. 또한 Karttunen도 間接疑問文을 直接疑問文에 동화시켜 直接疑問文은 그것에 상응하는 間接疑問文이 언약이행동사(performative verb)에 내포된 平敍文과 意味論的으로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⁹⁾ 그러나 이흥배(1970)는 履行構文에 內包된 直接疑問을 그 기저로 삼고 있어 이채롭다.

이상에서 살펴본 間接疑問文은 話法上의 間接話法에 속하는 間接引用 疑問文이라 할 수 있다.

한편 母文動詞(matrix sentence verb) 가운데는 疑問文을 補文(embedded sentence)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이들은 '모르-', '기억하-', '결정하-', '잊-', '궁금하-' 등과 '-어 보-' 조동사 구성의 母文動詞들이다. 이러한 구성에 나타나는 疑問文은 남의 말을 引用한 間接引用 疑問文은 아니지만 머리속의 생각을 間接引用한 것으로 話者의 內面的 疑心을 나타내는 또 다른 종류의 間接疑問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ㄱ. 영이가 학교에 갔니?
 ㄴ. 나는 영이가 학교에 갔는지 궁금하다.
 (5) ㄱ. 영이가 크니, 철수가 크니?
 ㄴ. 아버씨는 영이가 큰지 철수가 큰지 모르신다.

9) 권희상(1984:1)

- (6) ㄱ. 어제 형이 무슨 영화를 보았니?
 ㄴ. 나는 어제 형이 무슨 영화를 보았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이러한 動詞句 內包文(疑問補文)¹⁰⁾도 넓은 의미에서의 間接疑問文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는 이러한 構成의 動詞句 內包文도 間接疑問文의 범위에 넣어 間接疑問文의 樣相을 살피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間接疑問文이라 함은 母文의 한 成分으로서의 疑問文 즉, 內包된 疑問文으로서 間接引用 疑問文과 動詞句 內包文을 모두 포함하는 概念이다.

이렇게 疑問文을 母文의 한 成分으로 內包시키는 形態素 즉, 間接疑問 補文素로는 ‘-ㄴ지/-ㄴ가’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形態素이며 이 외에 ‘-ㄴ까/-ㄴ지’와 ‘-(느)냐고’가 더 있다. 이들은 자기 그 쓰임과 意味가 다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Ⅲ. 우리말 間接疑問文의 樣相

1. 間接疑問文의 構造

Montague 文法에 토대를 둔 Karttunen에 의하면 의문절(interrogative clauses)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직접의문절과 간접의문절이다. Karttunen을 비롯하여 Belnap, Hintikka 등은 疑問 分析에 있어서 直接疑問(direct question)을 間接疑問(indirect question)에 동화시킨다.¹¹⁾

그러나 國語의 間接疑問文은 英語의 間接疑問文과 그 意味가 다르다. 즉 前

10) 이하의 동사구 내포문이라 함은 의문보문으로서 의문문을 보문으로 취하는 구성을 말한다.

11) 권희상(1984: 1)은 다음 (ㄱ)의 직접의문문은 그것에 상응하는 (ㄴ)의 간접의문문과 동일한 명제를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ㄱ) Is it raining?

(ㄴ) I ask you whether it is raining.

者는 間接疑問을 나타내는 疑問語尾로 文章이 終結될 수도 있고¹²⁾, 上位文의 敘述語에 내포될 수도 있지만, 後者는 단지 上位文의 敘述語에 내포되는 경우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國語의 間接疑問文과 英語의 間接疑問文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國語의 間接疑問文은 直接疑問文과 일정한 대응을 이룬다. 아래 (7)~(9)의 문장들에서 (7. ㄴ), (8. ㄴ), (9. ㄴ) 문장의 밑줄친 부분이 내포된 疑問文 즉, 間接疑問文인데 이들은 각각 (7. ㄱ), (8. ㄱ), (9. ㄱ)의 문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곧 直接疑問文인 (7. ㄱ), (8. ㄱ), (9. ㄱ) 문장과 (7. ㄴ), (8. ㄴ), (9. ㄴ)의 밑줄친 부분 사이에는 각각의 疑問文 終結語尾가 間接疑問 補文素인 '-ㄴ가/-ㄴ지', '-ㄴ까/-ㄴ지' 등으로 바뀌었다는 차이점 밖에 다른 점이 없다.

- (7) ㄱ. 철수가 집에 갔느냐?
 ㄴ. 나는 철수가 집에 갔는지 궁금하다.
- (8) ㄱ. 영이는 철수를 좋아하니, 영호를 좋아하니?
 ㄴ. 나는 영이가 철수를 좋아하는지 영호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
- (9) ㄱ. 토끼가 몇 마리나 남았니?
 ㄴ. 선생님이 토끼가 몇 마리나 남았는지 물으시더라.

그러므로 內包된 疑問文 곧 間接疑問文이 보여주는 統辭制約이나 重義性은 直接疑問文에 있어서와 동일하다. 즉, 直接疑問文이 드러내는 용인가능성의 차이는 間接疑問文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選擇疑問文의 경우¹³⁾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 12) 국어에서 간접의문문을 나타내는 보문소는 '-ㄴ가/-ㄴ지'가 대표적인데 국어에서는 이로서 문장이 끝나 自問으로 쓰이기도 한다.
 (ㄱ)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가?
 (ㄴ) 나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가 궁금하다.
- 13) 선택의문문의 경우 목적이 위치에만 특수조사 '도'나 '만'의 출현이 허용되는데 이때 한 선택지에 '도'가 나타나면 나머지 선택지에는 '만'이 나타나야만 하며 이 역도 성립된다. 그러나 식물 어기면 非文이 된다.

- (10) 가. 철수를 불렀니, 영희를 불렀니?
 나. *철수도 불렀니, 영희도 불렀니?
- (11) 가. 나는 철수를 불렀는지 영희를 불렀는지 모른다.
 나. *나는 철수도 불렀는지 영희도 불렀는지 모른다.

위에서 보듯이 直接疑問文인 (10)의 가과 나이 드러내는 용인가능성의 차이는 間接疑問文인 (11)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間接疑問文에 포함시킨 間接引用 疑問文과 動詞句 內包文은 그 構造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1) 間接引用 疑問文

間接引用 疑問文은 間接話法(indirect speech) 속에 引用된 疑問文으로서 그 引用補文素에는 ‘-는가/-는지’와 ‘-(느)냐고’가 있는데, 우선 ‘-(느)냐고’에 의한 間接引用 疑問文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느)냐고’에 의한 間接引用 疑問文은 話者인 主語와 聽者인 引用文 副詞句, 그리고 間接疑問文과 母文 述語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疑問文의 先語末語尾와의 結合狀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動詞→느냐+고
- ii) 形容詞→(으)냐+고
- iii) 指定辭→냐+고
- iv) 完了·推定인 경우→느냐+고
- v) ‘-르까’의 경우→겠(느)냐+고
- vi) -지→(느)냐+고
- vii) 회상형→냐+고

이에 대한 각 예를 들어보자.

- (12) 가. 영희가 공부하니?
 나. 나는 순이에게 영희가 공부하느냐고 물었다.

- (13) 가. 순이가 예쁘니?
 나. 나는 동생에게 순이가 예쁘냐고 물었다.
- (14) 가. 이것이 고양이니?
 나. 동생이 나에게 이것이 고양이냐고 물었다.
- (15) 가. 경희가 학교에 갔니?
 나. 순이가 영수에게 경희가 학교에 갔느냐고 물었다.
- (16) 가. 등산을 갈까?
 나. 나는 현주에게 등산을 가겠느냐고 물었다.
- (17) 가. 순이가 책을 샀지?
 나. 나는 영호에게 순이가 책을 샀느냐고 물었다.
- (18) 가. 순이가 그때 밥을 먹더냐?
 나. 어머니가 나에게 순이가 그때 밥을 먹더냐고 물었다.

위의 예문에 쓰인 間接疑問 補文素 ‘-(느)냐고’는 또한 모두 ‘-는가/-는지’로 대체되어 쓰일 수 있다. 이때 先語末語尾와의 結合狀態는 아래와 같다.

- i) -었-, -겠- →-는가/-는지
 ii) 있-, 없-, 계시- →-는가 /-는지
 iii) 동사 어간 →-는가/-는지
 iv) 형용사 어간, 계시-, -더- →-은가/-은지

- (12') 나는 순이에게 영희가 공부하는지/는가 물었다.
 (13') 나는 동생에게 순이가 예쁘는지/가 물었다.
 (14') 동생이 나에게 이것이 고양이인지/인가 물었다.
 (15') 순이는 영수에게 경희가 학교에 갔는지/는가 물었다.
 (16') 나는 현주에게 등산을 가겠는지/는가 물었다.
 (17') 나는 영호에게 순이가 책을 샀는지/는가 물었다.
 (18') 어머니가 나에게 순이가 그때 밥을 먹던가/던지 물었다.

그러나 選擇疑問文의 間接引用 疑問文化는 ‘-(느)냐고’에 의한 것은 약간 어색해 보이고 ‘-는가/-는지’에 의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보인다.

- (19) 가. 은희는 차를 좋아하니, 커피를 좋아하니?
 나. 승호는 현주에게 은희가 차를 좋아하는지 커피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다. ??승호는 현주에게 은희가 차를 좋아하느냐 커피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 (20) 가. 영화가 크니, 순이가 크니?
 나. 아저씨가 나에게 영화가 크지 순이가 크지 물으셨다.
 다. ??아저씨가 나에게 영화가 크냐 순이가 크냐고 물으셨다.

위에서 살펴본 間接引用 疑問文이 母文에서 차지하는 文章成分은 目的語이다. 즉, 위의 間接引用 疑問文은 母文에서 모두 目的語의 역할을 한다.

(2) 動詞句 內包文

國語의 母文動詞 가운데는 疑問文을 補文으로 요구하는 일련의 動詞들이 있다. ‘모르-’, ‘기억하-’, ‘결정하-’, ‘궁금하-’, ‘있-’ 등의 動詞와 ‘-어 보-’ 등의 조동사 구성이 그것인데 이러한 疑問 補文은 어떤 특별한 形式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母文에서 차지하는 成分도 間接引用 疑問文이 母文의 目的語 역할 밖에 못하는데 비해 疑問 補文은 母文의 目的語는 물론 主語, 補語나 名詞 수식어까지 될 수 있다.

- (21) 영화는 누가 왔었는지 모른다.
 (22) 영주가 방 청소를 했는지가 의문이다.
 (23) 네 장래는 그 분이 너를 얼마만큼 도와주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動詞句 內包文의 疑問 語尾로 쓰일 수 있는 形態素는 間接疑問 補文素인 ‘-는가/-는지’, ‘-르까/-르지’, ‘-(느)냐고’가 모두 쓰일 수 있는데 이들 중 母文의 主語 노릇을 할 수 있는 補文素는 ‘-는가/-는지’와 ‘-느냐’ 뿐이며 母文의 目的語 역할을 하는 補文素는 ‘-는가/-는지’, ‘-르까/-르지’, ‘-느냐’ 어느 것이나 다 될 수 있다. 다만 母文의 敘述語에 따라 이 補文素들 가운데 어느 것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間接疑問文에서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쓰이는 間接疑問補文素는 ‘-나가/-너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나가/-너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間接引用 疑問 및 動詞句 補文의 疑問 語尾로 사용되는 것이다.¹⁴⁾ 따라서 이러한 間接疑問 補文素의 意味와 特徵을 파악하는 것이 間接疑問文을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2. 間接疑問 補文素의 意味

앞절에서 본고는 ‘-나가/-너지’가 가장 대표적인 間接疑問의 補文素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이제는 이 補文素들이 대체 어떤 意味를 지니기에 주로 上位文에 내포된 內包文의 形態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자. 間接疑問 補文素 중 ‘-(느)냐고’는 어떤 특별한 意味가 있는 것이 아니라 疑問語尾인 ‘-(느)냐’에 間接引用 補文素인 ‘-고’가 붙은 形態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가 /-너지’와 ‘-르까 /-르지’의 意味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1) ‘-나가 /-너지’의 意味

‘-나가’¹⁵⁾의 意味를 살피기 위해서는 15세기의 ‘-나가’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15세기 國語의 ‘-나가’ 疑問文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疑問法 즉, 質問으로는 볼 수 없다. 즉, ‘-나가’ 疑問文은 思惟者의 內的인 疑心을 表現하는 것이지 聽者에 대한 直接的인 質問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形式上 疑問法 形式에서 광범위하게 입증되는 疑問 添辭 ‘-가/고’를 포함하고 있는 점과 意味上 疑心도 疑問의 下位概念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가’도 疑問法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것이다.

14) ‘-나가/-너지’가 독립된 직접의문을 나타내기도 하나 이도 실은 내포문이었다는 것이 담화상의 화용적 상황보장에 의하여 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간접의문의 의문어미라 할 수 있다.

15) ‘-나가’의 의미는 김정아(1985) 참조.

‘-너지’는 ‘-나가’와 의미와 통사적 분포가 동일하기 때문에(어디에서나 서로 대체 가능) ‘-나가’ 하나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15세기의 '-니가'는 불확실한 思惟行爲를 나타내는 思惟動詞構文에 주로 내포된다.

- (24) ㄱ. 拘尸城시 사르미 너느 나라해서 와 아^나홀가 너겨 (釋譜 23 : 51)
 ㄴ. 感激 하야 거리치디 몬^하논가 스^랑ㅎ더라 (杜詩 24 : 28)
 ㄷ. 어엿브신 므스매 나가^싫가 저^하샤 (月曲上 : 其6)
 ㄹ. 너희 먹고 몬^도홀가 시^름말라. (釋譜 17 : 20)

즉 '-니가'문은 思惟의 內容을 表現하며 특히 확실치 않은 생각을 表現하는 形式인 것이다.

한편 '-니가'는 遂行構文에도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도 直接引用보다는 間接引用에 주로 사용돼 '-니가'가 갖는 의문의 힘은 그 강도가 상당히 약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니가'는 思惟動詞構文에서와 같은 內的 疑心이 本質이며 이 疑心の 段階보다 疑問의 강도가 강해진 遂行動詞構文에서의 '-니가'문도 독립적인 疑問文에 비해서는 약해서 直接疑問보다는 間接疑問에 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니가'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니가'는 思惟者의 內的인 疑心이 本質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는 上位動詞와 結合하여 內包文의 形式을 띠게 되고 그리하여 間接疑問 補文素의 대표적인 形式이 된 것이다.

(2) '-르까/-르지'의 意味

'-니가'가 대표적인 間接疑問 補文素로서 '思惟者의 內的 疑心'을 나타내는데 비해 '-르까/-르지'는 間接引用 疑問文에는 쓰이지 않고 疑問 補文에만 쓰이면서 '-니가'와는 또 다른 意味를 나타낸다.

- (25) ㄱ. 나는 그가 오늘 참석할까/지 모르겠다.
 ㄴ. 나는 그가 오늘 참석하는지 모르겠다.
 ㄷ. 나는 그가 오늘 참석했는지 모르겠다.

- (26) ㄱ. 그가 나를 믿을까/지 궁금하다.
 ㄴ. 그가 나를 믿는지 궁금하다.
 ㄷ. 그가 나를 믿었는지 궁금하다.

위 (25), (26)의 예문을 비교·고찰해볼 때 그 意味의 差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즉 ㄴ이나 ㄷ은 話者의 現在나 過去의 狀況에 대한 內面的인 疑心을 나타내는데 비해 ㄱ은 未來의 상황에 대한 推定의 意味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는 다음의 예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 (27) ㄱ. 나는 영이가 숙제를 할까/지 의심스러워.
 ㄴ. 나는 영이가 숙제를 하는지 의심스러워.
 ㄷ. 나는 영이가 숙제를 했는지 의심스러워.

이상에서 보면 '-ㄹ까/-ㄹ지'는 '-ㄴ가'와는 달리 話者가 主語의 行爲에 대해 가지는 推定的 意味를 가지는 補文素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意味를 가지는 근거는 원래 未來나 推定의 意味를 나타내는 '-ㄹ'이 포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이러한 특별한 意味 때문에 이들 補文素를 間接疑問 補文素로 취하는 動詞들은 대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아래와 같은 動詞들이다.

- ⅰ) 知識의 保有를 나타내는 動詞: 알다, 모르다, 기억하다
 ⅱ) 決定의 動詞: 정하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합의하다
 ⅲ) 推測의 動詞: 맞추다, 예측하다, 추측하다, 예상하다, 생각하다

3. 間接疑問 補文素의 特性

國語의 補文에서 가장 많은 연구노력이 쏠린 부분이 補文素¹⁶⁾이다. 여기에

16) 일반적으로 보문자(complementizer) 혹은 보문소라고 한다.

네포문을 이끌고 보문명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NP나 VP를 이루는 형태소를 말한다. (NP: 명사구, VP: 동사구)

서는 앞에서 계속 間接疑問 補文素라고 일컬어 온 ‘-는가/-는지’, ‘-르까/-르지’, ‘-(느)냐고’의 特徵을 一般 補文素와 비교하면서 구명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一般 補文素로는 ‘-다고’와 ‘-기’ 및 ‘-음’ 등이 있으며 단일한 形態素가 아니어서 補文素라는 명칭이 낯설기는 하나 위의 어느 補文素에도 못지 않을 만큼 폭넓게 補文 構成에 참여하는 形態素 연쇄로서 ‘-다는 것’과 ‘-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과 앞의 세 補文素를 모두 補文素라 부르기로 한다. 이 중 ‘-다는 것’과 ‘-는 것’ 그리고 ‘-음’과 ‘-기’는 모두 名詞句 補文을 構成하나 이들은 그 意味가 類似할 뿐이지 統辭 構成이 같은 것은 아니다. 특히 ‘것’ 補文構成과 ‘-음’은 비슷한 意味를 가지는데 이는 어느 문맥에서나 그 가치가 동일하여 ‘-음’과 ‘-는 것’이 자유롭게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고’와도 마찬가지로이다. 예로써 살펴보자.

- (28) ㄱ. 철수는 그 문이 잠겼다고 안다.
 ㄴ. 철수는 그 문이 잠겼음을 안다.
 ㄷ. 철수는 그 문이 잠긴 것을 안다.

이들은 서로 같은 意味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즉 ‘-다고’는 [-사실성], ‘-음’은 [○사실성], ‘-는 것’은 [+사실성]의 意味資質을 띤다고 할 수 있다.¹⁷⁾

어떤 補文素를 다른 補文素로부터 구별하는 일차적인 특징은 그것에 의하여 구성되는 補文을 內包할 수 있는 敘述語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敘述語는 하나의 補文素로서 구성되는 補文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補文素가 다른 여러 종류의 補文들을 모두 취할 수 있는 敘述語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알다’는 아래 (29)의 ㄱ~ㄷ처럼 ‘-다고’, ‘-는 것’, ‘-다는 것’에 의하여 구성되는 文章만을 補文으로 취할 뿐 아니라 (30)에서처럼 ‘-는가/-는지’ 補文도 취한다.

- (29) ㄱ. 나는 그가 온다고 알고 있었다.

17) 최규일(1985 : 115-118)

- ㄴ. 나는 그가 온 것을 알고 있었다.
 ㄷ. 나는 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ㄹ. 나는 그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0) ㄱ. 나는 그가 오는지/는가 알고 있었다.
 ㄴ. 나는 그가 언제 오는지/는가 알고 있었다.

따라서 敘述語의 종류에 의해 間接疑問 補文素와 一般 補文素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는 없다. 一般 補文素와 間接疑問 補文素의 統辭의 行動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는 補文이 疑問詞를 포함하는 경우에 母文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있다. 그런데 一般 補文素 가운데 '-다는 것'에 의해 構成되는 補文은 疑問詞를 포함하지 않으며 '-는 것'에 의해 構成되는 補文도 방향격조사 '-으로'에 앞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疑問詞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의 (31)과 (32)에서는 '누구'가 疑問詞로 해석되지 못하고 오직 不定詞로 해석될 따름이다. 이들의 母文이 說明疑問으로서의 解釋을 받지 못하고 判定疑問으로만 解釋될 수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33)과 (34)에서는 '누구'가 疑問詞로도 解釋될 수 있어서 母文이 判定疑問 뿐 아니라 說明疑問으로서의 解釋도 받게 된다.

- (31) 철수는 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니?
 (32) 철수는 누가 온 것을 알고 있니?
 (33) 철수는 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니?
 (34) 철수는 누가 왔었다고 알고 있니?

이처럼 疑問詞를 포함할 수 있는 一般 補文에 疑問詞가 포함되면 母文은 반드시 說明疑問이 된다. 즉 아래 (35)의 '누구'가 疑問詞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ㄴ과 ㄷ같은 平敘文 文章을 받아들일 수 없는 文章이 된다.

- (35) ㄱ. 영주는 은희가 누구 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니?
 ㄴ. *영주는 은희가 누구 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더라.
 ㄷ. *영주는 은희가 누구 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라.

- (36) ㄱ. 철수는 현주가 어디 간 것으로 알고 있니?
 ㄴ. *철수는 현주가 어디 간 것으로 알고 있더라.
 ㄷ. *철수는 현주가 어디 간 것으로 알고 있어라.

(35), (36)에서 '누구'나 '어디'가 疑問詞의 判定을 받으면 그 文章은 平叙文이나 命令文 등은 될 수 없고 반드시 說明疑問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間接疑問文이 疑問詞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母文은 統辭的 叙法에 있어 자유로우며 說明疑問으로서의 해석은 母文 스스로가 疑問詞를 포함하지 않는 한 주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37)의 ㄱ, ㄴ은 母文이 平叙文, 命令文인데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된다. 이는 (35), (36)의 一般 補文素가 疑問詞를 포함하는 補文을 構成할 때 母文의 統辭的 叙法이 說明疑問으로 制限되는데 비해 (37)의 間接疑問 補文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37)과 (38)의 ㄷ은 間接疑問 補文素가 들어있는 文章이 자유로운 統辭的 叙法 중 母文이 疑問文이 된다고 하여도 說明疑問은 될 수 없고 判定疑問으로서만 해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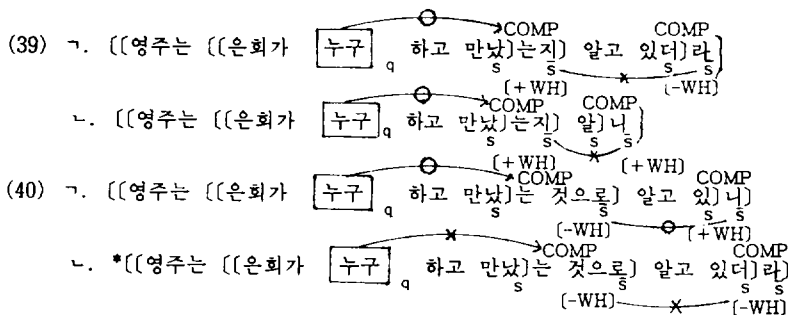
- (37) ㄱ. 영주는 은희가 누구 하고 만났는지 알고 있더라.
 ㄴ. 은희가 누구 하고 만났는지 말해.
 ㄷ. 영주는 은희가 누구 하고 만났는지 아니?
 ㄹ. 영주는 은희가 누구 하고 만났는지 어떻게 아니?
 (38) ㄱ. 철수는 현주가 어디 갔는지 알고 있더라.
 ㄴ. 현주가 어디 갔는지 알아 봐라.
 ㄷ. 철수는 현주가 어디 갔는지 알고 있니?
 ㄹ. 철수는 현주가 어디 갔는지 왜 알고 싶어하니?

그리고 ㄷ은 間接疑問 補文素를 가진 文章이 說明疑問이 되려면 補文의 外部 곧 母文 固有의 영역안에 疑問詞를 포함하여야 함을 시사해준다. 이 사실은 一般 補文素가 補文 內部的 疑問詞의 영향권(scope)을 母文으로까지 넓혀주는 데 반하여 間接疑問 補文素는 補文 內部的 疑問詞의 영향권을 補文 內부에 한

정함을 말한다. 이는 앞에서 母文의 統辭的 叙法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는 間接疑問 補文素의 特徵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부류의 補文素 사이에서 관찰되는 이 현저한 統辭的 差異는 다소 추상적인 理論體系의 층위를 설정한 후 그 층위에서 作用하는 規則들과 그 規則들의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원리들에 언급함으로써 명시적으로 記述·說明되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층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변형생성문법의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理論體系에서 LF라고 불리는 층위다. 표면에서는 疑問詞 移動(wh-movement)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韓國語를 記述하는 데에도 LF에서는 疑問詞의 영향권 결정을 위한 이동이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적어도 앞에서 제기된 一般 補文素와 間接疑問 補文素의 차이가 보다 명백히 시야에 들어옴을 볼 수 있다.

- i) 모든 補文素는 [+WH] 혹은 [-WH]의 統辭的 資質을 갖는다고 상정.
- ii) 一般 補文素는 [-WH], 間接疑問 補文素는 [+WH]를 갖는다고 상정.
- iii) LF에서 모든 疑問詞는 자신을 성분 통어(c-command) 하는 최초의 補文素 위치로 이동한다고 가정.
- iv) [-WH] 補文素는 疑問詞와 양립 不可→이 자리에 옮겨온 疑問詞는 반드시 상위문의 補文素 자리로 이동. [+WH] 補文素는 반드시 옮겨온 疑問詞가 남아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옮기면 非文이 된다. 아래의 統辭 規則을 보기로 살펴보자.



(39. 1) 곧 (37. 1)의 LF표시에서 疑問詞 '누구'가 [+WH] 補文素 '-니지' 자리를 채우나, 母文의 補文素 즉, 終結語尾 자리로 재차 옮겨갈 수 없는데 마침 母文의 補文素가 [-WH]자질을 갖는 '-다'기 때문에 疑問詞가 이 자리를 채워서는 안된다는 제약도 지키게 되어 (37. 1)은 적형문으로 남는다. 그러나 (37. 2)의 LF인 (39. 2)에서는 疑問詞 '누구'가 [+WH] 補文素 '-니지' 자리를 넘어서 다시 母文의 補文素 자리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說明疑問의 解釋을 받으면 非文이 된다. 따라서 (37. 2)은 判定疑問으로서의 解釋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35. 1)의 LF인 (40. 1)은 어떠한 制約도 어기지 않으므로 적절한 意味解釋을 받을 수 있는 적형문이다. 즉 補文素 '-는 것으로'가 [-WH] 자질을 가지므로 이 자리로 옮겨 온 疑問詞 '누구'는 母文의 補文素 자리로 다시 옮겨가야 하는데 마침 母文의 終結語尾가 說明疑問을 構成할 수 있는 '-니'여서 그 이동이 합법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0. 2)에서는 內包文의 補文素와 母文의 補文素가 모두 [-WH]자질을 띠므로 疑問詞가 놓일 자리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非文이 된다.

이상을 볼 때 間接疑問 補文素는 그 지배영역 내의 疑問詞의 영향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一般 補文素와 현저히 구별됨을 알 수 있다.

Ⅳ. 맺 음 말

지금까지 國語의 間接疑問文의 構造와 間接疑問文을 이끄는 間接疑問 補文素의 意味와 特性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概念이 약간은 모호했던 間接疑問文의 範圍를 명확히 하였고, 이러한 間接疑問文이 가지는 統辭의 特徵을 검토하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論議 結果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間接疑問文의 범위는 종래의 概念인 間接話法 속에 引用된 疑問文 즉, 間接引用 疑問文만을 고집하지 않고 母文動詞 중 疑問文을 補文으로 취하는 動詞句 內包文까지 넓혀 內包疑問文으로서의 좀 더 포괄적인 間接疑問文의 樣相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렇게 넓혀진 間接疑問文의 構造는 間接引用 疑問文과 動詞句 內包文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을 따로 고찰하였다. 즉 間接引用 疑問文은 ‘~에게’라는 引用文 副詞句가 덧붙으며 이들은 모두 母文의 目的語 역할을 한다. 그러나 動詞句 內包文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母文의 目的語는 물론 主語, 補語까지도 될 수 있다.

세째, 間接疑問 補文素에는 ‘-는가/-는지’, ‘-을까/-려지’, ‘-(느)냐고’가 있는데 이들 중 특별한 意味가 있다고 생각되는 ‘-는가/-는지’와 ‘-을까/-려지’의 意味만을 살펴보았다. ‘-는가/-는지’는 ‘思惟者의 內的 疑心을 나타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표적인 間接疑問 補文素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을까/-려지’는 話者가 主語의 行爲에 대해 가지는 推定的 意味의 形態素로서 ‘-는가/-는지’와는 그 意味가 구별된다.

네째, 間接疑問 補文素는 그 지배영역 내의 疑問詞의 영향권을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서 一般 補文素와 현저히 구별된다. 즉 一般 補文素는 補文 內的 疑問詞의 영향권을 母文에까지 확장시켜 一般 補文素가 이끄는 補文 內에 疑問詞가 들어 있으면 母文은 반드시 說明疑問이 된다. 그러나 間接疑問 補文素는 補文 內的 疑問詞의 영향권을 補文 內部에 제한하기 때문에 間接疑問 補文素가 이끄는 補文은 그 內部에 疑問詞가 있더라도 그 母文은 統辭的 叙法에 있어 자유로우며 母文이 說明疑問이 되기 위해서는 母文 스스로 補文 外, 母文 固有의 영역에 疑問詞를 취해야 한다.

參 考 文 獻

- 권희상(1984), 「疑問에 관하여」 언어 연구, 한국현대언어학회.
- 金貞娥(1985), 「15세기 國語의 '-ㄴ가' 疑問文에 대하여」 國語國文學 94.
- 김하수(1979), 「'-ㄴ가'의 意味와 統辭的 特徵」 말 4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 김영희(1975), 「의문문의 이접적 특성」 文法研究2, 문법연구소.
- 남기심(1973), 「國語完形補文法研究」,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 노용균(1984), 「國語 疑問文의 統辭와 意味」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희임(1981), 「國語 補文의 몇 가지 問題」 고려대 語文論集 22.
- 徐禎穆(1987), 「慶南方言의 疑問文에 대한 研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승신(1987), 「'-ㄴ지'의 統辭的 機能과 意味研究」 말 12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 이상복(1983), 「韓國語의 引用文 研究」 國語의 統辭·意味論.
- 이성구(1983), 「國語疑問의 類型에 관한 研究」 國語國文學 (서울대) 論文集, 18집.
- 이익환(1980b), 「疑問文의 意味」 어학연구 (서울대) 16-2.
- 이현희(1982), 「國語의 疑問法에 대한 通時的 研究」 國語研究 52.
- 최규일(198), 「韓國語 {짓}의 意味機能과 用法」 제주대학교 논문집 20집.